

심의 창구에 비친 대중지 실태

심상곤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심의부장

1. 잡지의 현황

1988 년은 우리나라 잡지 역사상 양적으로 가장 많은 종수의 신종 잡지들이 새로 선을 보인 한 해이다.

1988 년 1 월부터 10 월말 현재까지 새로 창간된 잡지 종수를 보면 주간이 200 종, 월간이 388 종, 격 월간 52 종 계간 91 종, 연 2 회간 25 종, 연간 55 종(주: 한국잡지협회 조사결과임) 등 모두 807 종이거나 된다.

이는 지난 1987 년에 등록되었던 217 종의 잡지보다 3 배 이상 늘어난 숫자로 월 평균 80 종, 하루 평균 2 종에서 3 종의 새로운 잡지가 창간된 셈이다.

이렇듯 1988 년 들어 「잡지 홍수시대」를 맞게 되자 각 잡지사들은 「여성지」, 「학생지」, 「종합지」, 「대중지」 등 성격이 유사한 잡지들간에 지나친 판매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판매 · 영업 · 광고 유치면에서 지나친 과다 경쟁을 하다 보니 일부 잡지들은 청소년들에게 성범죄를 조장케 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도색화 경향을 띤 편집을 하고 있어 사회 각계의 지탄을 받는 실정에까지 이르게 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지난 10 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간되고 있는 잡지는 총 3,226 종(유가지 1,283 종, 무가지 1,943 종)이다.

이같은 「잡지홍수시대」는 지난해 6 월 민주화선언이후 언론 · 출판의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잡지 독자층이 전문화, 다양화된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잡지 창간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행본 출판사들이 잇달아 전문잡지를 창간하고 있는 점이다. 「창작과 비평」 등 계간지들이 복간된 데에 이어 「사회와 사상」, 「사회비평」, 「경제와 사회」, 「고향」 등 종합지를 포함한 부정기 간행물인 무크지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로 창간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잡지 종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잡지 3,226 종을 성격별로 분류하면 무가지 1,943 종은 심의상의 문제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정기간행물들이다.

이들 무가지는 대체적으로 협회보이거나, 기업 PR 지이며, 각 회사내의 소식을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사내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선정적인 여인들의 누드를 수록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월간중앙」, 「신동아」, 「월간조선」 등 종합시사지와 「선데이 서울」, 「주간경향」 등 대중주간지와 「객석」, 「음악동아」, 「영상」, 「음악세계」 등 예술전문지와 「내차」, 「운전세계」 등교통전문지 「여성중앙」, 「여류」, 「주부생활」, 「여성동아」 등 여성지, 「주니어」, 「여학생」, 「하이틴」 등 학생지, 그리고 「대학입시」, 「진학」, 「수험생활」 등 수험전문지 등과 「엑셀런트 러브」,

「부부라이프」, 「월간 대중실화」, 「사람」 등 대중월간지 등을 비롯하여 경제지, 상업정보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지 1,283 종 중에서 대중성향을 띤 정기간행물들이 주로 심의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주로 제재결정을 받는 단골손님들인 대중잡지는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선데이 서울」, 「주간경향」, 「주간여성」, 「주간부산」 등 7개지와 일반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엑셀런트 러브」(창간호의 제호는 「러브 러브」였음), 「부부라이프」, 「러브다이제스트」, 「대중실화」, 「걸」, 「청춘시대」, 「야사와 사건」, 「점프」, 「로맨스」, 「사람」, 「명랑」, 「영화다이제스트」, 「역사와 실화」 등과 건강지임을 표방하고 나선 건강관계 유사잡지인 「건강다이제스트」, 「제 5 세대건강」 등 26 개지이다.

그밖에 심의 제재결정을 받는 단골손님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정기 간행물은 만화전문지이다.

만화란 어린이들이 본다는 특성 때문에 성인만화가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감안하여 만화지 등록을 억제해 오던 당국이 6.29 선언 이후 만화전문지 등록을 허가하면서 쏟아져 나온 「주간만화」, 「만화선데이」, 「만화세계」, 「월간만화」 등 7 개지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만화를 여과 없이 게재하고 있어 제재결정을 빈번하게 받는 실정이다.

2. 잡지의 사회적 책임

대중지들은 글자 그대로 대중성을 띤 여러 가지 사건과 얘기거리들을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되도록 취재,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층이 매우 넓다.

그래서 대중지가 사회적으로 갖는 책임 한계는 무척 넓으면서도 막중하다.

특히 대중지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도색적 이고도 선정적인 취향을 여과없이 취하고 있는 대중지들의 편집경향이 조속히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중지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환경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심성 및 정신연령 또는 지적 판단능력적 발달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중매체의 책임은 그 무엇보다 높다.

우리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처해있는 환경조건 중에서 사회환경은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보다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TV나 대중잡지라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물론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을 발휘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역기능 현상을 초래하는 내용의 기사, 사진, 광고들이 전체지면에 비해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의 급증, 청소년의 성폭력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문제와 심각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무척 예민하다. 그래서 합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어떤 사건을 두고 판단할 때 옳고 그른 점과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과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기성인들에 비해 약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주위 환경에 대해서 매우 수동적인 반면에 기성세대들에게 무조건적 반발을 하고 보자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의식이 것처럼 비뚤어지고 병들게 하는 것들은 사회 도처에 말할 수 없이 많이 깔려 있다.

앞에서도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대중지가 차지하는 범위는 매우 심각하다.

왜냐하면 일선교사들이 이따금 중, 고생들의 가방을 조사할 때가 있다는데 저질 출판물이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 권의 잡지를 반 전체 학생들이 돌려가며 읽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가 오래 전이기 때문이다.

3. 제재결정을 통해본 문제점

최근(1988년 9월, 10월)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는 잡지 창간 및 복간 붐은 언론자유가 곧 저질화, 음란화인 것처럼,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대중지의 경우 하나같이 저질, 음란, 도색화애로의 편집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해서 최근 YMCA, YWCA, 각 여성단체 등에서는 저질류의 잡지문화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중지들이 주로 다루는 내용 중 문제점이 있는 기사, 사진, 만화, 광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국내외 스타들의 신상명세서를 비롯해서 스캔들, 취미생활.
- 남녀 성교행위에 따른 각종 성쾌감도.
- 남녀 정사장면을 담은 영화 스틸과 전라의 국내외 여인들의 선정적인 자태를 담은 원색사진,
- 구매성향을 자극하거나 사치성향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는 각종 호화광고.
- 호모, 레즈비언들의 부도덕한 성생활기사
- 콜걸, 현지처들이 폭로하는 변태 성욕자들의 퇴폐적인 성생활기사 등이다. 우리나라 잡지들이 1987년 이후 1988년 11월말 현재 윤리위원회의 제재결정을 받은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간지>

주간지에 대한 1987년 이후 1988년 11월말 현재 윤리위원회의 제재결정을 보면 1987년 218건인데 반해 1988년 1월부터 11월말 현재 260건으로 나타나 퇴폐, 저질화 현상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주간지들의 제재결정내용을 분석하면, 남녀 정사장면을 담은 영화 스틸과 만화, 전조여인의 사진, 유흥업소의 퇴폐행위, 근친상간 등 비윤리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중 사진의 경우는 주간지 총 제재결정 건수대비 1988년 11월말 현재 35.4%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1988년에 들어와 만연하게 된 것은 누드사진을 사진작가의 작품임을 빙자하여 각 사가 경쟁적으로 수록하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기사의 경우, 1988년 11월말 현재 주간지 총 제재결정 건수 대비 14.6%, 광고는 12.2%로 종전보다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사의 내용이 더욱 저질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구인광고, 점술광고 등에서 여전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그리고 6.29 이후 주간지 편집경향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만화의 내용이 6.29 이전과는 달리 남녀 정사장면의 노골적인 묘사와 비윤리적인 소재의 사용이 점증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간지에 게재된 만화의 제재결정 건수를 1986년 주간지 총 제재결정 건수와 대비하면 1986년에 5.6%, 1987년 14.6%, 1988년 11월말현재 15.9%로 배 이상 증가했다.

<월간지>

월간지의 경우 유사 건강관련지, 만화, 전문지, 1987년 하반기 이후 새로 창간되거나 복간된 대중성 오락지, 연예정보지 등이 주요 제재결정 대상이 되고 있다.

1986년까지만 해도 여성지와 학생지가 월간지 총제재결정 건수 대비 37.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34.5%를 차지했던 대중성 오락지에 비해 많은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1987년에는 대중성 잡지가 39.1% 여성지와 학생지가 14.9%이며, 1988년 11월말 현재 대중성 잡지가 207건 35.5%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대중성 오락지의 퇴폐, 저질화가 1988년 올해 들어 급속하게 늘어 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들 월간지의 불건전화를 주도하고 있는 잡지를 보면, 건강지를 표방하고 있는 잡지 2가지를 비롯하여 대중성 오락지 등 20여 개지를 들 수가 있다.

이 중 특히 최근에 창간된 「LL」, 「BL」, 「G」, 「R」 등 4개지는 지난 9월 창간호에서만 28건이 라는 무더기 제재결정을 받아 포르노화 현상을 급격하게 시사하고 있어 청소년교육에 극히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져 자못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들 대중지의 제재결정 내용을 분석하면 주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녀 정사장면을 담은 영화 스틸과 만화, 전라 여인의 선정적 자태를 담은 사진, 근친상간, 사제간의 불륜-가정의 순결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퇴폐적이며, 비윤리적인 내용의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대중월간지의 제재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사진의 경우, 월간지 총 제재결정건수 대비 1986년 21.6%, 1987년 14.9%, 1988년 11월 말 현재 4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심의 결정 통계표 (1986~1988. 11)

구 분	주간신문				주간잡지				월간잡지			
	'86	'87	'88 (1-11)	계	'86	'87	'88 (1-11)	계	'86	'87	'88 (1-11)	계
기사	21	1		23	22	20	14	56	43	13	45	101
사진	29	12	13	54	58	96	127	281	54	37	143	234
소설					7		1	8	7	6	2	15
수기					2	2		4	4	6	6	16
삼화	1			1	2	4		6	5	1		6
그림					3	5	2	10	9	3	6	18
만화	3	1	2	6	12	31	75	118	24	11	65	100
광고	33	5	3	41	72	41	18	131	19	10	6	35
계	87	19	19	125	178	199	237	614	165	87	273	525
주의	15	10	10	35	26	95	118	239	46	43	102	191
경고	45	6	8	59	107	86	111	304	113	43	172	328
제재중지	27	3	2	32	45	18	13	76	6	1		7
제재건의			1								1	1
계	87	19	21	126	178	199	242	619	165	87	275	527
미풍양속저해	53	13	18	84	96	150	218	464	118	69	260	447
사회악영향	2	1		3	3	10	3	16	11	6	2	19
미신행위조장	14	3		17	9	9	10	28	6	2		8
광고불건전	18	2	2	22	68	22	8	98	20	8	4	32
광고물표시											2	2
명예훼손						8		8	9	2	3	14
품위상실					2			2	1		1	2
규약위반											2	2
계	87	19	20	126	178	199	239	616	165	87	274	526

※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제공 자료

● 기사의 경우, 월간지 총 제재결정건수 대비 1986년 26.1%, 1987년 14.9%, 1988년 11월말 현재 4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창간된 대중지들의 출현과 함께 기사내용이 급격히 퇴폐·저질화 경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대중월간지에 게재된 기사의 제재결정건수가 1988년(11월말 현재)의 경우, 15건으로 월간지 총 제재결정 기사 건수 대비 81.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은 최근 창간된 대중월간지의 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 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그리고 만화의 경우를 보면, 월간지 총 제재결정 건수 대비 1986년 14.5%, 1987년 12.6%, 1988년 11월말 현재 54.5%로 대중성 오락지의 등장으로 월간지 게재만화내용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한 눈으로 알 수 있게 한다. 만화는 주간지나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써 주로 남녀의 부도덕한 정사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만화들이다. (통계표 참조)

4. 대중지와 청소년 보호

앞에서 발표한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라 언론자유화 이후 질적으로 나빠져 가고 있는 대중지들의 실상을 훑어보았다.

이 통계에서 밝혀졌듯 제재결정을 받은 잡지는 2,900여종의 잡지 중에서 극히 소수인 20여개 잡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크게 걱정하거나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많은 맛있는 음식물들 중에 어쩌다 들어있는 한 방울의 독극물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듯 많은 좋은 잡지들 속에 끼어 있는 몇 권의 좋지 않은 잡지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심신을 해 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방치해 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퇴폐적인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비록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요청임을 잡지인 스스로가 느끼고 자신들의 자녀와 함께 읽어도 좋을 내용의 잡지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국에서는 앞에서 지적 했듯 유통과정상의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성인지, 청소년지, 아동지 등을 따로따로 판매하는 유통구조 개선점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현재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독소를 끼칠 수 있는 잡지는 철저히 제재조치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대중매체에서 문제가 되어온 것을 다시 한번 간추려 보면, 이른바 도덕적인 윤리문제 중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성과 폭력의 문제가 크게 문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에 기대되는 윤리성은 이른바 도덕적인 윤리보다도 다른 측면의 윤리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는 독자층이 근로청소년도 있다는 점을 감안, 도덕적인 윤리성도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윤리, 직업윤리 등을 보다 능동적으로 강조하는 면에 치중해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특정한 윤리적 규범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각 전문분야별로 건전한 윤리관을 확립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윤리의 측면에서도 한가지 강조되어야 할 것은 공정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정성이란 성, 지역, 종교, 출신학교 등에 대한 편견을 탈피하는 일이다. 매체는 어떠한 편견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다.

중앙대 철학과

국제신문, 한국문인협회, 소설가협회, 국제 P.E.N. 클럽 한국본부회원

저서: 장편소설 「싸늘한 태양」, 「사춘기 일기」, 「오직 내한마음」, 「작은사람의 노래」 외

현재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심의부장